

12/30/18

설교 제목: 너는 내 것이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이사야 43 장 1-7 절

- (사 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 (사 43: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 (사 43: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절관주](#) 출 20:2
- (사 43: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 (사 43: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 (사 43: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절관주](#) 사 45:22
-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절관주](#) 요 3:3, 고후 5:17, 엡 2:10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하고 다시 돌아 올 것을 종용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은지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합니다.

본문은 멸망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항상 가까이 닥칠 일과 함께 먼 미래에 대해 이중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직접적으로는 멸망에 처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좀 더 멀리는 자신의 연약과 부족 그리고 죄, 세상의 악, 마귀의 시험, 성화의 불확실성, 천국의 영광에 대한 불안 등등 때문에 두려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는 말은 내 소유라는 말입니다.

내 것, 나의 소유는 절대로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하신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너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 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본 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하시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1.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은 다같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2. 성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redemption)'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진 인간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프로젝트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순종으로 성공을 했고 그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 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고 산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3.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성령께서 불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가르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지명하여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구원의 인을 치신 우리를 가리켜 당신의 소유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일지라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될 때는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애착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1.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 43: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십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했습니다.

그 물이 애굽 군사들을 모조리 삼켜버렸을 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7 배나 뜨거운 불구덩이에서도 털끝하나 상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면 불같은 환란이 우리의 삶을 짓밟을지라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도 털끝하나 상치 아니했듯이, 우리도 보호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2. 보배롭고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사 43: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사 43: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사에게 애굽, 구스, 스바 등 이방 나라들을 내어주고 그 대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그들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는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들 대신 이방 사람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 43: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이방 사람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십니다.

아니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실로 죄인인 우리에게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4.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 43: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사 43: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서는 종국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범한 당신의 백성에게 벌 주시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 날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것은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행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될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에게 욕을 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짜피 겪을 고난이라면 담대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계명을 힘써 지키며 삽시다.

가진 달란트와 받은 복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답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